

더 이상의 이철수, 이한탁 씨 “안 돼”

교계 중심으로 로날드 리 군 구명운동

LA 한인사회가 로날드 리 군(25)의 구명운동에 본격 나선다. 한인교계의 주도 아래 지난 8일 한인회관에서 구명운동을 위한 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리 군은 2006년 7월 한인타운 내 한 주점에서 친구들과 있던 중, 다른 한인들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했고 상대측 중 한 명을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입고 있다. 사건 이후, 리 군은 한국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영어 교사를 하던 중 2010년 3월 경찰에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됐고 현재 미결수 상태로 4년 반 째 복역하고 있다.

그러나 리 군의 구명운동을 벌이

고 있는 이들의 주장은 다르다. 리 군이 사건 당시 그 주점을 방문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싸움이 벌어진 당시 현장에는 그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 구명운동을 이끌고 있는 박효우 목사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리 군 측과 싸움을 했다는 상대측 5인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리 군을 현장에서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은 리 군의 어머니인 이수 씨도 참석해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저는 로날드를 정직한 사람으로 키웠다. 로날드를 여러분의 아들과 형제로 생각하고 구명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



한인 청년 로날드 리 군의 구명을 위한 후원회가 12월 8일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발대했다.

다. 이번 구명운동은 최근의 이철수 씨 사망 사건, 이한탁 씨 무죄 판결 등과 관련해 한인사회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철수 씨는 갇힌 살인 혐의로 10년간 옥살이를 하다 1983년 8월 무죄로 석방됐지만 지병으로 인해 2014년 12월 2일 사망했다. 이한탁 씨는 친딸을 방화·살해했다

는 혐의로 25년간 복역하다 2014년 8월 22일 석방된 바 있다.

LA한인타운노인및커뮤니티센터의 박형만 이사장이 처음 시작한 이 운동은 2014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박효우 목사가 가세하면서 범교계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도 남가주교협의 신임회장 최혁 목사, 증경

회장 류당열 목사, 최학량 목사, 남가주목사회 신임회장 백지영 목사 등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후원을 당부했다. 이 후원회에는 공동회장에 박효우 목사, 제임스 안 한인회장, 남문기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회장, 최재현 LA평통회장, 박형만 이사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투명성 확보에 최선, 지출 및 배부 방식 대폭 변경

남가주교협 올해도 사랑의 쌀 나눔운동

올해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사랑의 쌀 나눔운동을 실시한다. 남가주교협은 10만 달러를 모금해 1만 포의 쌀을 지역 사회와 나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제3자의 관리와 감독 아래 투명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혁 회장은 지난해 사랑의 쌀의 재정 투명성 문제를 놓고 미주성시화운동본부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것과 관련해 “죄송할 따름”이라며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교협 사무실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최 회장은 “올해 교협은 이 운동을 시작함에 있어서 몇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제3자의 관리와 감독 아래 사랑의 쌀 운동을 교협 내에서도 독립성을 갖도록 한다. 후원금 전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액수에 관계없이 모

든 지출은 지출 결의서를 작성한 후 회계과 회장의 서명을 받도록 했고 반드시 수표로만 가능하다. 후원금의 모든 내역을 신문과 지면,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행사를 마친 후 결산보고서를 매체에 공개하되 누구든 열람할 수 있게 한다. 행사 후 남은 모든 금액은 사랑의 쌀 기금으로 다음 회기에 넘겨 준다.

최 회장은 “동포들이 사랑의 쌀을 위해 헌금한 전액이 사랑의 쌀에 쓰여질 수 있도록 언론홍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 즉, 각종 행사 준비 비용, 모금 만찬 비용 등은 교협이 자체적으로 헌금해 충당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의 경우는 전체 모금액의 83%가 쌀 구매에 사용된 바 있다.

최 회장은 “가능하다면, 언론사에도 사랑의 쌀 운동에 동참을 요청하며 무료 광고를 부탁드려 보려 한

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기부한 모든 금액이 100% 쌀에 구매되길 바라는 것이 동포들의 기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쌀 배부 방식이 바뀐다. 전에는 주로, 사랑의 쌀을 위해 헌금했던 교회들에서 배부가 이뤄졌다. 교협에 사랑의 쌀을 요청해 쿠폰을 받으면 그 쿠폰을 들고 해당 교회를 방문해 쌀을 받아가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쿠폰을 받으면 가까운 마켓을 방문해 직접 쌀을 수령할 수 있다.

최 회장은 “그동안 소수이지만, 쌀을 받아가기 위해서 줄을 서는 모습을 부담스러워 하는 이웃들이 있었다. 올해는 쿠폰을 받으면 그것을 들고 어느 마켓이라도 방문해 자신이 원하는 쌀과 맛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 설명했다.

→ 2면에 계속

여성목사회 수석부회장에 2명 출마

나주옥 목사 - 임세라 목사 총회에서 선거



나주옥 목사



임세라 목사

오는 15일 제 4차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백지영 회장) 총회에 수석부회장 후보 2명이 출마할 예정이다. 올해 남가주교협과 남가주목사회가 수석부회장 출마자가 없어 공식 사태를 맞이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첫 번째 후보는 나주옥 목사다. 나 목사는 율타리선교회의 대표이며 샌프란시스코신학교를 졸업하고 LA 다운타운에서 20년째 노숙자들을 섬기고 있다. 두 번째 후보는 임세라 목사다. 임 목사는 가나교회의 담임목사이며 미주대한신학대학교를 졸업했다.

이 둘은 11일 오후 5시까지 입후

보 서류를 여성목사회에 제출하면 정식 후보 등록 절차를 마치게 된다.

여성목사회는 목회 경력 3년 이상에 여성목사회 봉사 3년 이상을 충족할 경우 수석부회장 출마 자격이 주어지며 발원 기금으로 회장 후보는 1천 달러, 수석부회장 후보는 5백 달러를 내야 한다.

이번 총회는 15일 오전 11시 한우리장로교회(1932 10th Ave. Los Angeles, CA90018)에서 열린다. 올해 총회에서는 현 수석부회장인 강지원 목사(한우리장로교회)가 회장으로 인준될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CMM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기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받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고후 9:12)

전국민의료보험시대,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료상조회는,
 • IRS Section 501 (c) (3)에 의거한 비영리 기관인 로고스 선교회 소속이며
 •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 기관인 Health Care Sharing Ministry로서,
 •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의료비 나눔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북부지역: 엘에이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벤추라 카운티 산타바버라 카운티

교회 및 단체, 소그룹 모임 세미나 접수받습니다!

의료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한인들을 위해
 “오바마케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남가주 북부지부 | 지부장: 김경호 목사 | ☎ 213.249.1161 | shelby.moon65@gmail.com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기독일보 LA | ☎ 949.864.9162 | cmm6791027@gmail.com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본부) 52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 무료전화 888-777-8226 | www.cmmlogos.org | info@cmmlogos.org

따뜻한 사랑으로 2014년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 4만9500달러 굿네이버스에 기탁

소망소사이어티가 굿네이버스의 아프리카 우물 개발사업에 4만 9,500달러를 기탁했다. 이 금액으로 굿네이버스는 아프리카 차드에 15개의 우물을 개발할 계획이다. 소망소사이어티는 2010년 3월부터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프리카 우물 개발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무려 247개의 우물을 판다. 올해만 37개나 된다.

아프리카에서 우물은 단순히 '물'에 그치지 않는다. 주로 여성과 어린이들이 수 마일을 걸어서 물을 길어 오기 때문에 마을 내에 우물이 있다는 것은 여성의 안전과 어린이의 교육 문제와 직결된다.

소망과 굿네이버스는 우물을 개발 후에는 그 지역에 유치원까지 개원해 어린이들의 교육도 돕고 있다. 현재까지 총 4군데의 유치원을 개원했는데 올해 세워진 곳은 1군데다.

12월 8일 소망홀에서 열린 종무식 및 송년 모임에는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줄리 박 이사가 환영인사를 전하고 이장순 목사가 기도한



12월 8일 남가주 세리토스에 위치한 소망홀에서 소망소사이어티의 종무식 및 송년 모임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소망 측은 굿네이버스에 4만9,500달러를 기탁했다.

후 행사가 시작됐다. 이종열 이사가 2014년의 사역을 보고하고 2015년의 계획을 나누었다.

소망은 굿네이버스와의 협력 사업 외에도 소망교육세미나 11회, 소망유언서 9,270부 작성, 시신 기증자 697명 신청, 소망나눔가게 거라지 세일, 시신기증추모식, 실버연극 하늘꽃 공연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쳤다.

소망 측은 유분자 이사장은 "2015년에도 소망소사이어티와 함께 한 인연장자는 물론 주변의 이웃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문의) 562-977-4580
www.somangsociety.org
김나래 기자

홀리스에겐 생명의 안식처 "사랑의 침낭" 필요해



베레카홀리스선교회가 남가주 지역의 홀리스들을 위해 텐트 형식의 침낭을 후원받고 있다.

3차례 500개 침낭 위한 후원 기다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특히 마약, 알코올, 도박 등의 중독으로 인해 홀리스로 전락한 영혼 구원에 힘써온 베레카홀리스선교회(대표 최명균 목사)가 12월 한 달 동안, 3차례에 걸쳐 홀리스들에게 500개의 침낭(텐트)을 전달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이 선교회 대표 최명균 목사는 "추운 겨울, 홀리스들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며 추위에 떨어야 한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의 통로를 열어 가고자 이 캠페인을 하게 됐다"라며 많은 관심과 후원의 손길을 당부했다.

한편, 미국에는 현재 약 350만 명의 홀리스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에는 약 36만 명의 홀리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오래된 홀리스 구호단체인 유니온 레스큐 미션에 의하면 하루밤에 약 5만7000명의 홀리스들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쉼터는 턱없이 부족하다. 오렌지카운티도 상황은 마찬가지

다. 최 목사는 "OC파트너십의 7월 보도에 의하면, OC 지역에도 하룻밤 평균 4천3백명이 자고 있고 노숙자를 수용하는 쉼터는 단 두 곳뿐이다. 집이 없어 홀리스들에게 500개의 침낭(텐트)을 전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수용시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더 많은 쉼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이 선교회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자체 쉼터를 건립해 보다 효과적인 홀리스 사역에 힘쓰고자 한다고 밝혔다.

침낭의 1차 전달은 12월 19일 오후 8시 LA 다운타운 545 S. San Pedro St.에서 미국교회인 스캐터링시즈교회와 함께 한다. 2차 전달은 20일 오전 8시 샌타애나 시청 인근 593-677 N. Ross St.에서, 3차 전달은 28일 저녁 6시 부에나파크 6801 Western Ave.에서 이뤄진다.

최 목사는 "역물린 영혼들의 변화를 위해서는 삶을 함께 하는 예배공동체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당부했다. 문의) 714-392-1916(최명균 목사) 562-682-0777(피터 최)

사랑의 "쌀" 아닌 "사랑"의 쌀 목표로 최선



남가주교협이 지난 8일 사무실에서 사랑의 쌀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 1면으로부터 계속 물론 기존의 배부 방식도 병행되며 여러 한인 신학교와 KYCC(한인타운청소년센터)에서 이 역할을 맡아 준다.

쌀을 신청하고 싶은 이웃은 남가주교협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할 수도 있고 한인가정상담소, 민족학교, KYCC 등 한인단체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한 가정당 최

대 2포까지 가능하다. 최 회장은 "사랑의 '쌀'이 아니라 '사랑'의 쌀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동안 사랑의 쌀 운동으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분이 많다. 올해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태도로, 쌀이 아니라 사랑에 집중하고, 교계가 연합하고 화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사랑의 쌀 헌금은 남가주교협으로 우편(981 S. Western Ave. #401 Los Angeles CA90006) 기부할 수 있으며 교협의 새 웹사이트 www.scalck.org에서도 가능하다. 문의) 323-735-3000

김준형 기자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킨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학교"
"2015년 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www.ptsa.edu / ESL: www.facebook.com/SLCS.EPT

모집과정 : 신학사(B.A.), 교역학석사(M.Div.)

2014년 겨울계절학기: 12월 15일~1월 23일
2015년 봄학기 개강: 1월 26일 (월)
ESL 봄학기 개강: 1월 5일 (월)

1-20 발행 정회원 ats 준회원

입학관련 문의
미국 1-562-926-1023 ext.300 / office@ptsa.edu
한국 010-6612-1165 (담당: 박정환 목사)

ESL 문의 및 상담
강우중 교수 (wjikang@ptsa.edu)

총장 이상명 박사 이사장 박성규 목사

산타페언어문화교육원 겨울방학 4주 특별 '관광학습' 과정
미국의 대표도시인 Los Angeles 와 서부의 유명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각 장소 및 상황에서 강사가 제시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점검받으면서 진행되는 어학연수와 관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Hybrid 과정입니다. (기간: 1월5일~30일)
비용: \$2,600 (4주 어학연수비, 관광 일정 (음식 상품 제외), 4인 1실 조식 제공 호텔 포함) + 항공료 * 참가자 임의로 항공권 구입가능.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Fax. (562) 926-1025
www.ptsa.edu / office@ptsa.edu



7일 OC교협의 신입회장, 신임이사장, 신임후원이사장이 각각 취임했다.

OC교협 김기동 회장 취임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의 회장에 김기동 목사, 이사장에 엄영민 목사, 후원이사장에 이범식 장로가 취임했다. 동시에 전임이었던 민경엽 회장, 박용덕 이사장, 김영수 후원이사장은 이임했다.

12월 7일 주일 오후 5시 나침반 교회에서 열린 이취임식은 수석부회장 민승기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회장 한기홍 목사가 “우리를 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2부 순서는 기획담당 부회장 송규식 목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

했다. 2년에 걸쳐 회장을 역임한 민경엽 목사가 사역을 회고한 후, 교협기가 이양되고 신입회장 김기동 목사가 취임사를 전했다.

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이영훈 목사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미주복음방송 사장 송정명 목사, 영 김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오렌지카운티한인회 김기동 회장, JAMA의 강순영 대표, OC-SD평통의 권석대 회장이 축사했다.

이어 3부 순서는 250여 내빈들의 만찬과 축하의 자리로 이어졌다. 문수현 기자

아시아인 여학생 30%가 우울증 “아파본 이들이 아픈 마음 알아”

KCCD, 정신건강 강연자 훈련 프로그램 소개

KCCD(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가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상처받은 치유자(Wounded Healer)’들을 모집하고 있다.

아파본 이들이 아픈 이들의 처지를 아는 법이다. ‘과거에’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고통받다가 회복된 이들이 각종 단체나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는 가운데 ‘현재’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 KCCD는 샌프란시스코정신건강협회(MHASF)와 함께 강연자를 교육하고 실질적인 강연 현장에 투입하는 사역을 시작한다.

MHASF의 소셜워커(MSW) 폰테치노 씨가 가장 좋은 예다. KCCD와 함께 이 사역을 소개하기 위해 지난 4일 기자회견에 나온 폰테치노 씨는 과거 정신분열증을 앓았다. 명문 UC버클리에 입학했지만 학습 스트레스로 인해 소위 말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말았다. 그러나 이를 성

공적으로 극복한 후, MHASF에서 과거의 자신처럼 정신질환을 겪는 이들을 돕고 있다.

임혜빈 KCCD 회장은 미국인들, 그 중에도 아시아인들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충동, 가정 불화로 인한 정신적 갈등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시아인 청소년 및 청년의 자살율은 다른 민족에 비해 가장 높으며, 5학년에서 12학년 사이의 아시아인 여학생들의 30%가 우울증을 갖고 있다. 같은 학년대의 아시아인 남학생은 17%가 육체적 학대를 경험하며 한인 기혼 여성의 60%가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다.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곧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시아 가정들은 이를 외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며 정신질환을 ‘정신병’이라며 현실을 외면하려 한다.

임 회장은 “폰테치노 씨의 사례처럼, 자신과 같았던 누군가가 지금은 회복되어 건강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그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교회나 한인 단체 등의 다양한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강연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이라 설명했다. KCCD 측은 이번 사역이 정신질환 혹은 정신건강에 대한 한인사회의 편견을 극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KCCD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열리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강연자들이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효과적으로 강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일단 아시아인들, 그 중에서도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지만 타인종, 타민족에게도 개방해 누구든지 남을 돕고자 한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질환을 극복한 당사자를 포함해 함께 고통받았던 가족들도 강연자가 될 수 있다. KCCD는 한 번의 훈련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리소스

를 제공할 계획이며 교회나 단체에서 요청이 있을시 가장 적절한 강연자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역할도 한다. 이 자리에는 강연자뿐 아니라 정신건강 전문가도 동행해 효과적인 강연과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 예정



KCCD가 아시아인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역을 시작한다. 기자회견에 나온 말리아 린다 하비어 폰테치노 씨(오른쪽)가 자신의 경험담을 전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임혜빈 KCCD 회장.

이다. 그러나 가장 넘어서야 할 벽은 편견이다. 임 회장은 “좋은 강연자를 훈련시키는 것만큼이나 한인 교회나 단체가 적극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213-985-1500 김준형 기자

주님의영광교회 버라이어티 문화 공연 “Glorious” 무대에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가 2014년 연말을 맞이해 버라이어티 문화 공연 ‘Glorious(글로리어스)’를 오는 14일 주일 오후 5시에 무대에 올린다.

이 교회는 매년 성탄을 즈음해 문화 공연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

음을 전하고 있다.

춤, 찬양, 성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미와 감동을 주고, 경품 추첨으로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선물도 준다.

교회 측은 “가뜩이나 분주하고 세상 문화에 젖어 의미없이 보내게 될

이 연말에 한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은혜를 줄 이 행사를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문의) 213-749-4500 주소) 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90015 김나래 기자

기독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ga.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 \$90
240g 소비자가 \$185
2개 구입시 \$150
3개 구입시 \$180
4개 구입시 \$230
2개 구입시 \$370
3개 구입시 \$555
4개 구입시 \$450
홍삼순액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2014 미주청년학생 Conference
LIGHT HIGHERCALLING14
HIGHER CALLING CONFERENCE 2014
다음세대가 빛 되신 예수그리스도를 만나야합니다
www.gohighercalling.com
Dec. 21-24 2014 / San Diego
\$195 by Dec 8, \$245 by Dec 21
SPECIAL GUEST SPEAKERS
JIM-BOB PARK - Senior Pastor, OMC
EUGENE CHO - Lead Pastor, Quest Church
GREG STIER - Dare 2 Share Ministries
DONG WHAN KIM - National Director, KCCC and MANY MORE!
DECEMBER 21-24, 2014
TOWN AND COUNTRY RESORT & CONVENTION CENTER
500 Hotel Circle North, San Diego, CA 92108
Phil Wickham Concert
HIGHER CALLING MAIN OFFICE : 1636 W. 8th Street #100, Los Angeles, CA 90017
Phone : 213.389.5222 | Email : LAoffice@highercalling.org

평생 교육 시대, 한국 대학 학위를 미국에서

한국 사이버대학들 미주 한인들에게 파격적 장학 혜택



최근 한국의 8개 사이버대학 관계자들이 LA를 방문해 미주 한인들에게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인가하는 정식 학사 학위를 미주에서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렸다. 세계 최대의 IT 강국인 한국의 온라인 대학교들이 미주 한인들에게 파격적인 장학금을 제공하며 학생을 모집한다.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교를 미국에서는 흔히 온라인 대학이라 한다. 온라인 대학을 소규모 통신 교육 과정 정도로 생각하던 시절은 이미 끝난지 오래다. 미국에서도 온라인 대학은 직장인이나 은퇴자는 물론, 20대 초반의 학생들에게도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에서 2001년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이 시작되던 당시 전국 재학생이 6,200여 명이었지만 2014년 현재는 무려 10만여 명이 공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를 원격대학, 속칭 사이버대학이라 부르고 있다.

최근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소속 8개 대학이 LA를 방문해 한인들을 대상으로 입학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희사이버대, 대구사이버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서울디지털대, 서울사이버대, 송실사이버대, 원광디지털대, 한양사이버대 등 8개 교의 부총장, 학과장, 교수, 입학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은 이 설명회를 통해 한인들에게 대학의 장점들을 소개했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공부할 수 있다는 편리성 외에도 이 학교들이 자랑으로 내거는 점은 여러가지다.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정식 학위가 발급된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인가하는 학위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물론,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도 정식 학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당

연히 미국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 정무성 송실사이버대학 부총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총장은 사이버대학의 장점으로서 “모든 이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비교적 저렴한 학비로 제공한다는 점”이라 설명했다. 신입학도 가능하며, 미국 유학생들은 편입학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서울사이버대학의 경우는 1년 4학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학위를 마칠 수도 있다. 게다가 대다수 학교가 스마트폰 학습을 지원하고 있어서 한결 편리하다.

두번째는 실용적으로 특화된 학과들이다. 예를 들어, 경희사이버대학의 경우는 모바일융합학과, 대구사이버대학은 행동치료학과, 놀이치료학과, 행동치료학과, 서울사이버대학은 문화예술경영학과, 군경상담학과, 송실사이버대학은 기독교상담복지학과, 뷰티미용예술학과, 엔터테인먼트학과, 게임영상콘텐츠학과, 원광디지털대학은 한방건강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한국복지과학학과, 한양사이버대학은 디지털건축도시학과, 사회복지시설경영학과 등이 개설돼 있다.

특히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에 대한 학과들은 큰 주목을 받는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의 한국언어문화학과를 졸업하면 학사 학위는 물론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증도 취득하게 된다. 이미 이 학교에만 전세계 42개국에서 450여 명이 재학할 정도로 국제화 되어 있다. 해외 한국학교 교사들의 호응이 특히 높으며 외국인들도 한국을 배우기 위해 이 학과에서 공부 중이다.

윤병국 경희사이버대학 대학원

장은 “보통 사이버대학들은 일반대학의 3분의 1로 학비가 저렴하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8개교는 미주한국학교연합회나 LA한인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추가로 30%-50%의 학비 감면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원광디지털대학교를 예로 들면, 18학점 기준으로 한 학기 등록금은 144만원이다. 학점당 8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미주 학생들은 43만2천원이 더 감면돼 100만8천원이면 한 학기 공부를 할 수 있다. 미국대학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학비다.

여기서 미주 한인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시민이나 영주권자를 가리킨다. 그러나 윤 대학원장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서류미비자나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도 이런 학비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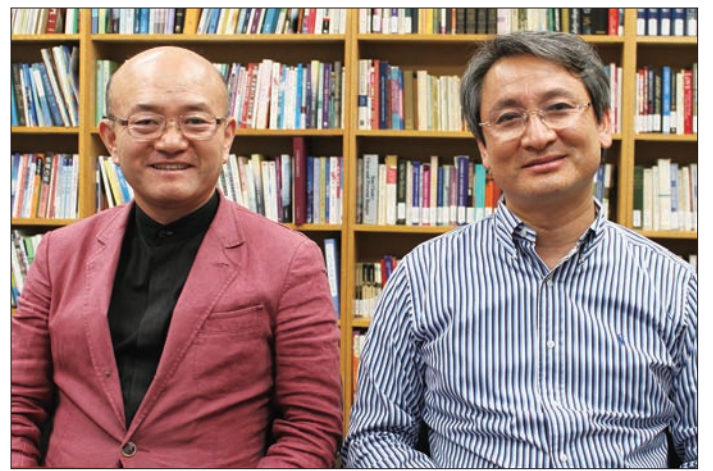
그러나 한편으로 한계도 있다. 경영학과나 한국어 학과, 각종 언어관련 학과들 외에 사회복지학과, 상담학과, 부동산학과, 재난소방학과 등 특수한 전공들은 미국에서 그 학위가 그대로 취업과 연결되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이 대학들의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소셜워커로 일할 수는 없다. 이들이 이 분야로 진로를 개척하려면 어쩔 수 없이 미국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추가 교육 과정을 미국 내에서 이수해야 한다.

윤 대학원장은 “그 점도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규 교육기관과의 협약, 공동교육 등을 통해서 해결하려 노력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예를 들면, 이미 서울사이버대학의 부동산학과는 미국 CCIM(Certified Commercial Investment Member) 협회의 상업용부동산 투자분석사 자격증, IREM(미국부동산관리협회)의 부동산자산관리사(Certified Property Manager) 자격증, 미국국 제공인증개사 자격인 CIPS(Certified International Property Specialist) 등을 취득하는 길도 열어 주고 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 대구사이버대, 서울사이버대, 원광디지털대, 한양사이버대 등은 다양한 석사 학위 전공들도 마련해 놓고 있다.

자세한 입학 정보는 각 대학 웹사이트나 사이버대학 종합정보 시스템 www.cuinfo.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형 기자



GMS의 정홍주 본부총무(좌)와 김찬곤 부이사장(우)이 LA를 방문해 미주사무소 문제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건물보다 본질과 사명에 집중”

GMS의 선교 노하우 한인교회와 나누고파

12월 두 번째 주간 동안 한국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 부이사장 김찬곤 목사(안양석수교회)와 본부총무 정홍주 목사가 LA를 방문했다. 주목적은 GMS 미주사무소 매각 건이다.

GMS는 2011년 남가주 풀러톤에 미주사무소 건물을 86만 달러에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과정에서 선교사 안식년 기금으로 지정된 예치금을 담보로 1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과정상의 불법성 문제가 대두됐고 일부 선교사들과 이 문제에 관해 사회 법정에 고소가 오고 가기도 했다. 결국 2012년 GMS 총회는 미주사무소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구매 당시보다 수만불 가격을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은 담보 상태다. 김 목사 일행은 이 문제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LA를 방문한 것이다.

김 목사는 “미주를 선교의 중요한 기지로 인식하고 미주에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 건물 구입은 시작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기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궤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목사는 “현재도 매년 3천6백만원의 이자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을 빨리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총회에 손해가 적다”고 부연했다.

김 목사는 “사무소 건물을 매각하면 미주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지금 매각이 추진되는 이유는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 때문이지 미주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GMS가 현 갈등 상황을 바로잡고 신뢰도를 쌓을 수 있다면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이번에 미주지역 동부와 서부에 합동 총회의 노회가 복구된 일과 관련해 “GMS가 가진 선교 노하우를 미주 디아스포라 교회와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선교지에서 쌓은 청소년 사역 노하우, 특히 MK(선교사 자녀) 사역에 대해 GMS가 가진 비전을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인교회들과 나누고 싶다는 것이다. 1만 2천 교회가 100개 국에 파송한 400명 선교사들이 축적하고 있는 노하우를 한인교회와 나누게 되면 한인교회들의 선교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김 목사는 “GMS도 다음 세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에 이 민교회들과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가진 저력과 은혜의 힘을 모아 이제 다음 세대로 함께 나아가자”고 권했다.

김 목사는 “건물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본질에 집중해 미주의 선교지원을 동력화 할 것”이라고 했고 정 목사는 “이를 위해서라면 작은 사무실로부터 임대해 알차게 일을 시작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정 목사는 “목회자가 선교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 합동 총회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양성을 위해 설립한 평신도단기선교훈련원(LMTC)을 미주 지역에도 보급해 선교를 지망하는 평신도들을 초교파적으로 훈련하고 동원하는 일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목사는 “사명에 집중하면 본질을 향해 나아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안에만 급급해 갈등이 생긴다. 선교에 집중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GMS가 될 것이다.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김준형 기자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어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아름다운교회 성가대반주자 모집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로렌하이츠에 위치한 아름다운교회에서 사역에 함께 하실 성가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은 음악전공자나 교회성가곡 반주를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연습시간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부터 9시 15분까지 또 주일에는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 사이로 주일예배 전후로 1시간씩 연습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이며, 간단한 인터뷰와 오디션이 있습니다.

E-mail: dhpark2430@gmail.com
문의 : 213-605-6015
성가대지휘자 김도희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가는 것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히브리서의 초반부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해방은 되었으나 광야에서 40년간 소멸됩니다.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이끌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끌어 함인데, 많은 이스라엘의 기성세대가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복음을 받은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가데스바네아에서 믿음을 가지지 않은 까닭입니다. 온 백성이 가나안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한탄하고, 욕하고, 후회하면서 모세를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헬라어는 “피스티스”이고 충성의 헬라어는 “피스토스”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이 없었던 고로 충성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과 충성이 가득한 마음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세 가지 그릇된

마음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안고한 마음”(hardened heart)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말씀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수납하지 않는 안고하고 딱딱한 마음입니다. 성도는 완악한, 안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즉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어 땅을 기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하여 온유하여야 복을 얻습니다.

둘째는 “미혹된 마음”(seduced heart)을 척결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전쟁터가 됩니다. 말씀에 기반을 둔 생각 혹은 미혹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싸우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

탄의 속임수를 극복하여야 합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편했는데, 과거에 노예생활 하면서 고기도 많이 먹고 양념도 마음대로 먹었는데, 그것이 좋았다는 꼬임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온갖 기적과 표징을 행하였지만, 미혹된 마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sinful unbelieving heart)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마음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는 마음이 됩니다. 선한 마음은 성령님의 열매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선(goodness)이라는 복을 주셔서 우리로 착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편에서 행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이룩하십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안식은 변화된 마음의 소산입니다. 믿음과 충성의 결과로 이 안식이 임합니다.

한 달 더 빨리 살기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12월에 들어서니 눈도 오지 않는 푸근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겨울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일 년 열 두 달 가운데 가장 어영부영하면서도 재빠르게 지나가는 달이 12월인 것 같습니다. 12월은 마치 정거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처럼 1월이 될 때까지 그렇게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없이 새해를 맞고 급조하듯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금년에는 한 달 더 빨리 시작하면 어떨까요? 12월 초반에 지난 2014년을 돌이켜 보면서 먼저 결산을 합니다.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들이 무엇인지 적어보고, 거기에서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경험들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억의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지난날들을 다시 살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마음에 앙금처럼 남아있는 불쾌한 관계의 기억들도 정리해야 합니다. 살다보면 희노애락의 감정은 언제나 사람들을 통

하여 일어나고 그 여파도 오래갑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실망감은 언제나 분노와 함께 다가옵니다. 상처를 주었던 사람은 쉽게 잊어버려도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더 큼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아픔을 아뢰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 길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지난해에 잘 했던 일들, 자랑스러웠던 일들, 칭찬 받았던 일들도 잘 묶어서 기억의 선반 깊숙한 곳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여유

가 생기고 더 잘 살고 싶은 열망도 생깁니다.

새해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은 영원한 미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미래를 “맞춤 미래”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새해 아침에 거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시작하다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포기한 적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운동을 하지 않고 본 게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12월은 1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 준비운동을 하는 달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새해부터 매일 성경을 몇 장씩 읽겠다고 결심하려면, 그 결심을 12월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길 때에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12월을 잘 사용함으로 새해를 한 달 더 빠르게 시작해 보십시오.

만남의 축복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회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피할 수 없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선택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만남이든, 선택적인 만남이든 이 만남이 삶의 모습을 결정짓습니다. 미국 이민자들의 직업은 미국에 도착하는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정해진 다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아나, 우스개 소리로 흘려버리기에는 공감이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분들의 고백이 참 많습니다. 미국 이민생활 35년차인 A 씨는 LA공항에 마중 나오신 분을 만나지 못해 발만 동동구르다가 한 한인인의 도움으로 차를 얻어타고 한인타운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준 한인인과 지인이 되어 부동산 에이전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노라면 이민 올 당시만 해도 자신이 현재의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다고 표현하십니다. 하지만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직업과 더불어 현재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뛰어들어 그 생업의 현장은 사실 알고보면 만남의 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은 또 다른 만남의 연결고리를 형성시킵니다. 때로 그 만남의 연결고

리에 교회가 묶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평생의 동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 만남의 복잡한 메카니즘은 삶의 극적인 전환점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민생활은 이렇게 복잡하고 오묘한 만남의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체로 미국 정착과정을 잘 마치고 안정된 삶을 이루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현재가 좋은 만남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피하고 싶은 이민생활의 쓴맛을 애타게 맛보신 분들은 잘못된 만남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민생활의 성패는 만남에 있다는 성경말씀 결론까지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결론이 과하든 아니든 ‘만남의 중요성’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만

남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뒤안길에 복잡하게 얽혀진 수많은 만남 중 최고의 만남은 무엇일까요?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사업 파트너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이 만남들은 생애 중대한 영향을 미친 만남이 분명합니다. 이 만남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만남이 있습니다. 한평생을 좌우하는 것을 넘어서 영원을 결정짓는 영향을 주는 만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 영원이 결정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수혜자가 됩니다. 후회없는 기쁨의 시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분들이 그 시작이 행운의 만남에 있었다고 들을 때마다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만남보다 더 위대한 만남이 있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만남을 시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운명을 송두리채 바꾸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공항에서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오늘의 이민생활이 있었다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과와의 만남 속에 당신의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각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원자력 피해	일본 2세 남자아이 원자력 피해로 말 못하고 걷지 못했으나 M3 셋트 2달 복용후 말하고 걸을 수 있게 됨 토요타 빅토리아 8180-1339-2069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원(77세)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음을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쾌.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하여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독도 호전됨. 복용 후 190kg가 125kg로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 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 우울증, 야노증	어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노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직전의 다리과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영(52세, 가디나)
심한 알라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3일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잦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자(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나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선(16세, 엘에이)
취장암 말기	60세 중년에 가장 힘들다는 취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취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옴.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하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종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팩(뉴저지)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며, 신생아기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들했었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안하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도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년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었다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건강과 성경 이야기 32

것이 땅 팔은 돈 전액이라고 속였느냐 라는 말입니다. 두번째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며, 예수 믿는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믿는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앞을 못보게 됩니다. 9장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뗐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기를 대대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를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기를 사도바울도 환상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눈을 다시보게 하는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아나니아는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히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을 핍박하는 대제사장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23장

1.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이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2.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철한 담이여 하나님을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평판된 속인 아나니아, 하나님을 믿는 성도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 중 두번째 성도 아나니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시 어떻게 하면 피를 만드는 장기와 피를 움직이는 장기들을 통하여, 신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기력을 회복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음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흙의 식물에서 나온 미네랄을 드시면 장기에 좋은 영양분이 공급되므로 혈액도 맑아집니다 213-435-9600번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필달)	213.386.5310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714.690.0120	동부총판	201.983.8333
시온약국	213.382.6485	LA벌몬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시애틀	206.331.6655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나하임	714.469.5809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디나	714.351.044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에스약국	323.733.7788	클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H 마트 내 H 헬스 (엘바인)	949.251.0193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818.642.8223	놀릭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플로리다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NC/SC	770.457.1717
LA 사랑방	213.351.9552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로렌하이츠	626.912.5727	캐나다	604.872.1669
LA내쳐영양센터	213.739.8874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세크라멘토, 아리조나	602.332.6492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WCC 총무 등 세계 종교 지도자들 일본 우경화 우려

남 파괴해 자신 지키려는 생각 거부해야



제4회 9조 세계종교자회의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일본 헌법 제9조에 대해 논의하는 '제4회 9조 세계종교자회의'가, '헌법 9조와 세계의 평화 내셔널리즘을 어떻게 넘을까'를 주제로 3일부터 5일까지 재일본한국YMCA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올라프 F. 트베이트 총무도 참석했다.

일본기독교협의회(NCC) 코바시 코우이치 의장은 이 대회 개최 인사에서 "확실한 회의를 통해 평화의 다짐을 새롭게 하고 싶다"고 인사한 뒤, "아베 수상은 헌법을 바꾼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는 마음을 정해 이런 죄의 길을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하나님, 부디 저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일본과 세계의 평화를 지키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다.

동경대학 타카하시 테츠야 교수가 '우경화하는 일본의 역사 인식과

헌법 인식'을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타카하시 교수는 "헌법 9조가 가진 의미는 분명 보편적임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정치가 이에 크게 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지난 10월에 제출된 일미방위협력지침의 중간보고를 통해 "헌법 9조의 의미가 공동화(空洞化)되고 있다"며 "헌법 9조가 지시하는 '군대 없는 세계'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WCC 트베이트 총무는 '일본국헌법의 제9조- 동북아시아와 그 범위를 초월한 평화를 위한 지주(支柱)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는 "우리의 확신은 제9조가 재해석이 아닌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여러분의 생활 한편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국제관계 중심으로 재차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9조는 일본의 유산 그 이상이다. 전쟁에 의해 상처를 입은 모든 나라들에게 교훈이고, 대립에 만족하고 있는 모든 정부에 있어 교정책(矯正策)"이라며 "제9조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한국, 북한, 그리고 러시아에 있어서 건전한 과제다. 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해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무기에 대해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에 대한 죄 남용이다. 우리의 의무는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와 조화를 이룬 공동체와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를 대량파괴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정당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거부되어야 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안젤리나 졸리 '언브로큰' 촬영 중 기도로 '기적' 체험

무릎 꿇고 기도하자 태풍 멈추고 햇빛 비취 실제 주인공 잠페리니의 신앙에 크게 감화

안젤리나 졸리(Angelina Jolie)가 제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신실한 크리스천 루이스 잠페리니(Louis Zamperini)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언브로큰'(Unbroken) 촬영 도중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

지난 7월 2일 97세의 나이에 폐렴으로 숨진 잠페리니는 올림픽 육상선수 출신이자 전쟁 포로였다. 그는 최근 졸리의 감독 데뷔작이자 전쟁 영화인 '언브로큰'의 실제 모델이다. 로라 힐렌브란드(Laura Hillenbrand)도 소설 '시비스킷'(Seabiscuit, 선원용 건빵)에서 처음으로 잠페리니의 이야기를 다룬 바 있고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됐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할리우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39)와 신실한 크리스천인 루이스 잠페리니와의 만남은, 그녀를 영화 감독의 길로 인도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었다.

잠페리니의 딸인 신시아 개리스(Cynthia Garris)는 지난 5일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졸리는 신앙인이 아니었고, 이전까지 기도를 해 본 적도 전혀 없었다. 그러나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에서 특별한 장면을 촬영할 때, 졸리는 간절한 기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햇빛이 필요했고, 이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었다. 그러나 태풍이 불고 있었고, 이는 얼마 동안 계속될 예정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개리스는 "졸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루이스가 하던 대로 해보겠다'면서 무릎 꿇고 '기적이 생기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우리 모두가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태양이 나왔다. 그리고 무지개가 생겼다. 졸리는 '이 장면을 찍자'로 했고, 제작진은 이를 카메라에 담았다. 그녀가 '컷'을 외치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이처럼 특별한 순간은 아

비지의 신앙에 대한 가장 마지막 간증이자, 신앙인이 아닌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의 강력한 삶의 이야기가 지닌 능력이다. 졸리도 아버지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아버지께서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길 원하시는 메시지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 모두가 그 주변에 있었다. 아버지의 임종 당시 약 45분 정도 늦게 온 졸리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그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저 곳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난 졸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육상팀의 촉망받던 선수였던 루이스 잠페리니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도 참가했다. 그러다가 그는 세계 제2차대전이 발생하자 미 공군의 포병이 됐는데, 대서양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타고 있던 비행기가 폭격을 당해 동료들과 함께 일본군에게 잡혔다. 당시 그는 태평양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47일간 표류하면서도 살아남았으며, 일본 포로수용소에서 3년을 지냈다. 그는 끔찍했던 일본군 포로수용소에서 살아남았고, 이후 빌리 그래함 목사의 크루세이드 집회 때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다.

앞서 카리스마 뉴스는 "호주에서 영화 제작을 시작한 안젤리나 졸리는 잠페리니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 두 사람은 자라면서 가까운 친구가 됐다. 잠페리니의 위대한 신앙에 대해 힐렌브란드의 일대기는 언급만 했을 뿐 강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졸리와 잠페리니의 개인적인 관계성을 바탕으로, 영화에서는 이 부분이 더욱 부각될 것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로라 힐렌브란드는 '시비스킷'에 기초한 영화 '언브로큰'은 미국 전역에서는 크리스마스에, 한국에서는 12월 31일 개봉한다.

강혜진 기자

요르단 국왕 "무슬림이 앞장서서 IS 문제 해결 책임 다해야"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리야에서 이슬람국가(IS)를 상대로 한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이고, 무슬림들의 문제다. 무슬림들이 (이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압둘라 국왕은 CBS '오늘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무슬림들은 일어나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IS는 우리의 종교(이슬람)를 대변하지 않

는다. 우리 모두가 IS를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알카에다에서 나온 수니파 단체인 이들은 이라크와 시리아 내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이른바 지하드(성전)을 통해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고자 한다"면서 "이는 이슬람 내부의 전쟁이다. 따라서 우리가 잘못을 시인하고, 또한 주도권을 잡아서 다시 싸워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앞장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압둘라 국왕은 "우리는 다른 이름이지만 같은 신념을 가진, 실질적으로 같은 모든 단체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략적이고 전체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다. 우리가 시리아와 이라크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고 있다. 우리는 이 이슈에 대해 반드시 범종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단기적 전략은 군대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데올로기적인 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시리아에서 IS 대원들은 수백 명의 시민들을 죽였다. 특히 기독교인들과 야지디족들의 피해가 컸다. 이들 가운데 수만명이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났다. 약 5,000명의 야지디족 소녀들과 여성들이 최근 IS에 의해 붙잡혀 있으며, 대원들에게 성노예로 팔리기도 했다.

압둘라 국왕은 "최근 IS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도 여전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영화 언브로큰의 실제 주인공인 루이스 잠페리니(오른쪽)와 감독 안젤리나 졸리(왼쪽)

회소식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파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Tel. (213)276-8959(찰리 정)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찰리 정

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200명의 미국, 인디언 심마니 협력 업체

100% 미국 야생 산삼

HQ
山
蔘

가을 햇산삼이
나왔어요

근 뿌리 근 뿌리
정성스럽게 캐습니다!

미국 야생 산삼
1 파운드 = \$800~\$1,300
+ 특별 선물 무료 증정
HQ구연산과 HQ천연미네랄 회색소금(\$200-\$300상당)



산삼의 2차 가격파괴,
산삼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정착시킨 정직한 업체입니다.
산삼의 품질은 최고로 가격은 최저로 해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면역력 · 자연치유력

타 업소보다 2-3배 싼 가격

NY, WI, VA, NC주 최상급 북부 최상급 효능 햇산삼이 매주 두번씩 들어옵니다.
주정부 발행 진품 인증서 첨부된 100% 살아있는 야생 산삼입니다.
채취시 흙이 묻어있는 그대로 들여와 한 달 내에 전량 판매됩니다.
인삼, 홍삼이 안맞는 분들도 미국 산삼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산삼복용법은 씹어서나 달여서 드시도록 상세 소책자를 드립니다.

산삼의 25가지 효능

임상실험 30년 노하우를 전수받아 건강상태에 따라 각각 상담해 드립니다

- | | |
|--------------------------------|---------------------------------|
| 1.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 | 14. 루머티즘, 만성관절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 |
| 2. 당뇨에 효과가 탁월함을 임상실험으로 입증되었음 | 15. 만성피로나 하체무력감에 매우 뛰어난 약성효과 |
| 3. 심장을 강하게 하며 심매계의 악리작용을 강화한다 | 16. 체내 독기 제거로 피부를 깨끗하며 종기를 식혀줌 |
| 4. 위장병 원인이 되는 위산과 펩신의 분비물을 억제함 | 17. 노화물질의 축적을 억제해 노화방지효능이 크다 |
| 5. 미국 산삼은 고혈압, 저혈압의 증세를 정상화 시킴 | 18. 생명력, 저항력이 증가해 알콜중독과 숙취에 탁월 |
| 6. 알레르기성 체질을 개선시킨다(비염치료 포함) | 19. 부인병(냉증, 월경과다, 자궁출혈)에 탁월한 효능 |
| 7. 정력을 증강시키며 남녀 불임환자에게 효과가 좋다 | 20. 폐기능 등 호흡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함 |
| 8. 각종 간질(간염, 간경변, 간암 등)회복에 탁월함 | 21. 신경과민, 신경쇠약과 불면증에 효능이 있다 |
| 9. 성인병 예방은 물론 갱년기 장애 해소에 탁월함 | 22. 모든 질병의 빠른 회복과 원기를 보하고 돌아준다 |
| 10. 두뇌 신경세포를 촉진시켜서 머리가 총명해진다 | 23. 추위를 타지 않으며 손과 발이 따뜻해진다 |
| 11.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며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 | 24. 면역력을 극대화시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탁월함 |
| 12. 망막혈관을 세동맥을 선명하게 해 눈을 맑게 한다 | 25. 성인병 예방은 물론 갱년기 장애 해소에 탁월함 |
| 13.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스트레스를 없애준다 | |

건강상담 및 문의: Dr. 최



전속모델 탤런트 박영지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시내산은 어디인가’ 성서·지리·고고학적 고찰

한국이스라엘연구소 세미나 개최



한국이스라엘연구소 제8차 학술세미나가 ‘시내산은 어디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한국이스라엘연구소(소장 신성윤 박사)가 4일 오후 2시부터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시내산은 어디인가’를 주제로 제8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성서지리학·성서학·고고학적 측면에서 시내산의 위치를 고찰했다. 국내에 2007년 김승학 씨의 「떨기나무」가 출간되면서, 진짜 성경의 시내산은 시나이반도에 위치한 시내산(제벨 무사)이 아니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주장이 논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표했다.



강후구 박사

강후구 박사(히브리대 고고학, 서울장신대 교수)는 ‘시내산 위치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을 발표했다.

그는 시내산 위치에 대한 여러 설 중 하나인, 김승학 씨의 ‘라오즈산이 시내산’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김승학 씨는 미디안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암각화를 사우디에 시내산이 위치하고 있다는 근거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박사는 “그 그림 가운데 메노라 모티브가 나오는 것을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시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바위에 새겨진 메노라 장식은 후대의 것으로, 출애굽 당시의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고고학적·역사문헌적인 자료를 통틀어 메노라 모티브는 구약성서시대에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김 씨가 솔로몬의 홍해 도하 기념 기둥이라고 주장하는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로마 시대 또는 비잔틴 시대의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제 그 기둥의 위쪽 부분은 그 위에 무언가를 떠받칠 모습을 지니고 있지, 기념비로 여겨질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고 강 박사는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해 그는 히브리대 고고학자인 바이스 교수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화강암으로 된 이 돌기둥은 주후 3-6세기경의 후기 로마 시대-초기 비잔틴 시대의 것으로, 그 부근 지역에서 가져온, 출애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둥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고 했다.

김승학 씨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는 또 다른 증거들 중 하나로, 그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바위에 새겨진 타무딕 비문을 내세운다. 이에 대해 강 박사는 “타무딕 글자가 보편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주전 4/3세기~주후 3/4세기이며, 이 언어는 28개 글자에 주로 바위나 야석 위에 새겨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따라서 타무딕 비문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했던 글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후대의 비문이며, 이 비문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거라 주장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단정했다.

김승학 씨는 또 미디안 광야의 유물 가운데 토기를 증거로 제시하는데, 강 박사는 이에 대해 “중기 청동기 시대, 비잔틴 시대 또는 무슬림 시대의 특징적인 장식으로, 출애굽 시대의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지금까지의 연구된 것을 바탕으로 본다면, 출애굽 당시 미디안에서는 오히려 채색된 토기가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강 박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고고학적 증거는, 미디안 토기를 제공하고 있는 그 당시의 유적들이 제시될 수 있으나, 출애굽한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출애굽과 관련된 고고학적 연구를 위해 이후 더 발굴과 지표조사 가 필요하며,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경우에는 성서적·생태적·지리적·역사적 증거물을 통한 간접적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며 발표를 마쳤다.

‘시내산 위치에 대한 지리학적 접근’에 대해 발표한 정연호 박사(히



정연호 박사

브리대 구약학, University of Holy Land 교수)는 “시내산의 위치에 대한 논란은 크게 시내산이 시내 반도에 있다는 주장과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는 주장으로 나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서지리학적 측면에서 세 가지 관찰포인트를 살펴볼 것이며, 이를 통해 시내산의 위치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발표를 시작했다.

정 박사가 시내산 위치에 관해 성서지리학적 측면에서 다룬 세 가지 관찰 포인트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의 지점인 수르 광야의 위치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이 정착했던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 △가데스 바네아를 떠난 이후의 여정 연구 등이다.

첫 관찰 포인트인 ‘수르 광야의 위치에 관한 연구’에서 정 박사는 “이는 시내산이 시내 광야에 있는지 미디안 광야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점”이라며 “성서지리학적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가 어디인지를 밝혀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출 15:22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들어간 곳이 수르 광야이기 때문이다.

정 박사는 라오즈산이 시내산이라는 김승학 씨의 주장에 대해 “김승학 씨는 수르 광야가 성경의 미디안 광야, 오늘날의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민수기 25장 15절에서 찾고 있다”며 “하지만 민 25:15와 출 15:22의 수르가 전혀 다른 히브리어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수기의 수르는 ‘차데’이지만, 출애굽기의 수르는 ‘원’으로 시작되는 단어라고 그는 설명했다.

두 번째 관찰 포인트로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를 다룬 정 박사는, 가나안의 경계와 관련된 성경 진술들을 들어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를 페트라 혹은 메디안 살라로 보는 입장의 부당함을 논증했다. “성경적으로 트랜스 요르단인 가나안과 유다의 경계에 포함된 적이 없고, 그런 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이전의 역사적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세 번째 관찰 포인트인 가데스 바네아 이후의 여정에서, 정 박사는 세일산과 관련된 본문들을 심도 있

게 다뤘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과 관련해 언급된 세일산은 예돔 지역이 아니라 아라바의 서쪽, 할락산의 남쪽 중부네게브 산지였다는 것이 그의 주장. “그럴 경우 이스라엘이 세일 산지 주의를 뿜었다는 신명기 2장 1절의 언급은 곧 가데스 바네아 주변의 신광야를 방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것은 곧 가데스 바네아가 페트라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성경적 증거”라고도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정 박사는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에서 진행했던 고고학 발굴 결과를 소개했다. 1967년부터 1982년까지 15년간 시나이 반도의 출애굽 루트를 따라 진행된 발굴은, 고고학자들의 손에 출애굽과 관련된 발굴물을 하나도 쥐어 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벤자민 마자르를 비롯한 많은 고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은 출애굽을 신화로 간주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이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막 유목민들의 삶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더구나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보낸 기간이 단 한 세대였음을 고려할 때, 흔적이 남지 않은 것은 당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성서지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시내산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증거는 출애굽과 관련된 중요한 장소들 - 홍해, 수르 광야, 가데스 바네아 - 등이 요단과 아라바 서편에 위치해 있음을 보여준다”며 “일부 학자들이 자신들의 논리에 과몰입 명백한 성서지리학적 증거를 놓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며 발표를 마쳤다.

이어 정연호 목사(히브리대 박사과정, 월드미션교회 기관담당)는 “시내산 위치에 대한 성서적 고찰”을 발표했다. 정 박사는 “본 소고의 목적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과 성경을 신앙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인 시내산의 위치를, 성경의 내용에서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며 했다.

정 박사는 먼저 “많은 이들이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호렘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학자들은 ‘호렘’을 어떤 산의 이름이 아니라 시내산이 위치한 지역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시내산 위치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한 뒤 견해를 밝혔다.

이어 정 박사는 광야 여정과 관련된 구약 본문의 기록들을 살펴봄으로써 시내산의 위치를 분석했다.



정연호 목사

그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시내산의 위치에 대한 거리상의 정보를 명확히 담고 있는 성경구절은 신명기 1장 2절(호렘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이라며 이를 근거로 “시내산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300~500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정 박사는 출 12:37~19:2, 민 33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살펴봄으로써 시내산은 현재 수에즈 운하로부터 150~200km 거리에 위치한다. 트라야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홍해까지의 거리는, 후자에서 시내산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짧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시내산의 위치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 소개했다. 아이스펠트와 올브라이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서쪽에서 약 35km 떨어져 있는 헬랄 봉우리가 시내산이라 주장했고, 아니티는 가데스에서 동남 방향으로 약 55km 떨어진 곳에 있는 카르프산이 시내산이라고 주장한다. 성서지리학자 하르델은 시나이 반도 중부에 위치한 신-비술 봉우리를 시내산으로 본다. 비크와 루카스는 아카바/에일랏에서 동쪽으로 약 15km 거리에 위치한 비갈산이 시내산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정 박사는 “이상에서 소개된 시내산의 위치에 대한 주장들은 그것들에 대한 뒷받침으로 제시되는 고고학적 자료들에 대한 아마추어적인 해석을 비롯한 여러가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성경의 내용에 근거해 정리한 조건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임미영 박사(바르일란대 고고학, 국제성서박물관 학예연구실장)가 ‘시내산 위치에 대한 고고학적인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2부에서는 최명덕 목사(조치원성결교회, 전 이스라엘연구소장/학회장) 사회로 윤석호 선교사(인도 Jessys Bible College 학장), 이일호 박사(웨일즈대, 한국성서고고학회 회장), 장재일 목사(BOB 아카데미 대표), 주철현 목사(호신대 갈릴리성서지리문화연구원 연구실장) 등이 나서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김은애 기자

공 고

음악 저작권 침해는 불법입니다!

미국 및 캐나다 지역의 한국음악 및 교회음악 (CCM)저작권 사용에 따른 징수 권리를 가진 퍼블리싱 컴패니 (주)엘로힘 이피에프 USA는 2014년 10월 15일을 기준으로 미국 및 캐나다 지역의 한국 음악 및 교회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진 등록을 공고합니다.

1. 교회에서 찬양을 사용할 시 이제는 저작료를 내셔야 합니다. 안 내면 불법입니다.
2. 교회에서 사용 되는 복음성가곡은 저희 Elohim EPF USA에 내시면 됩니다.
3. 저작료에 대한 것은 웹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Elohim EPF USA는 자진 등록 기간에 등록된 교회에 한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 공고 내용 —

등록 대상: 한국음악 및 교회음악(CCM)을 사용 하는 모든 교회

등록 기간: 2014.12.31

등록 방법: 웹사이트 등록

<https://elohimepfusa.com>

Tel. (213)736-0073

문의처: 문의 사항은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접수합니다.

Independent Music Publishing and Licensing Company

Tel. (213)736-0073

<https://elohimepfusa.com>



US 군목 및 채플린 세미나

여러분 자녀들을 미군사고사로 보내지 않게스니까!
 사역자여러분! 전세계 미군의 군대에서 개척해보지 않게스니까?
 목사님들에게 미국 내 병역 및 관공서 채플린을 권합니다. (년봉 4만불이상)

미군 휴역 근무자와 채플린들이 근무를 지원하는 방법과 혜택 그리고 채플린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드리는 공개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특히 유학생들이나 서류미비자이시다면 이밖에 행정면역으로 합법체류가 가능한
 분들이 합법적으로 미군근무를 할 수 있는 과정도 소개합니다.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예약이 필요합니다.

일시 : 2015년 1월 26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오전 8시 예배

오전 9시-12시 채플린설명

1-2시 한국군출신 군목 에드스 설명

2시- 4시 모의 인터뷰 (자기 영어가 어느정도인지 인터뷰-예약필요)

장소 : LA오피스교회

참가비 : 35불(점심포함)

주최 : US 군목 및 채플린 연구소

강사 : Chaplain, Rev. Stephen Feinstein

Chaplain, Rev. Joseph Choi



주소 : 1510 pearl street santa monica, ca 90405

전화 : (310) 502 - 9999

문의 및 예약 : 행정실장 김겨려 목사

박명수 교수의 한국교회의 연합운동과 복음주의 (3)

한국 복음주의 교회 연합운동을 위한 10가지 제언

한기총 이영훈 목사의 제20대 대표회장 취임과 한복협이 '교단장협의회' 재발족 움직임으로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변화의 조짐이 싹트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지는 2014년 3월 20일, 한기총에서 주최한 한국교회연합운동 토론회에서 박명수 교수(서울신대)가 발표한 '복음주의적 연합운동 방안' 원고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한국교회 복음주의 연합운동의 방향

현재 한국교회 내에서 진보주의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진보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실질적 동력을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해 한국 복음주의는 새로운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 한기총이 복음주의라는 기치 아래 보수주의 교단들을 연합하여 한국교회 최대 연합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진행된다면, 한국교회의 보수/복음주의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는 다시 한국교회가 복음주의의 기치 아래 연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것을 위해 다음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교회의 연합운동은 복음주의 신앙과 신학에 기초해야 한다. 한국 대다수 교회가 복음주의라면, 한국교회 연합기관은 이런 신앙을 대변해야 한다. NCKK가 한국교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NCKK는 한국교회의 목소리보다는 진보적 세계교회의 흐름에 민감했고, 그들의 재정으로 움직였으며, 교회의 목소리보다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한국교회 연합기관은 한국교회에 기반해야 하며, 그 신앙과 신학을 대변해야 한다.

사실 이 같은 복음주의 신앙은 초기 선교사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 동안 진보적 목소리와 근본주의적 목소리만 강했지, 온건한 복음주의 입장은 양극에 가려 별로 들리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교회의 연합운동은 이런 말없는 다수의 의견을 끌어내고 결집하여, 한국교회의 진정한 대변자로 우뚝 서야 한다.

둘째, 한국교회의 복음주의 연합운동은 정교분리 원칙에 입각해,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의 역사는 국가권력에 박해받던 시절(초대교회), 국가권력의 보호를 받던 시절(중세교회)을 거쳐, 이제는 국가권력과 분리된 정교분리의 새로운 시대(근대사회)에

이르게 되었다.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박해받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기독교 신앙이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된다. 복음주의 신앙은 국가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교회 연합기관은 국가를 향해 기독교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기독교 선교에 유익을 주어야 한다. NCKK는 사회정의에 대해서는 큰 목소리를 냈지만, 정작 한국교회의 현안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정부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단체이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종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 국가와 교회 사이에는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 국가는 국가의 힘으로 종교의 영역을 제한하려고 한다. 여기에 대해 한국교회의 연합기관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금 중립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관들도 종교적인 성격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해외 선교사들은 종교의 차원을 떠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영사적 업무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종교기관은 특수성에 따라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 사적 기관과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다. 정부는 전통문화·민족문화의 이름으로 다른 종교는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근대문화를 주도한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부족하다.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일차적인 임무는 국가기관을 향하여 한국교회를 대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한국교회의 연합기관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분명한 국가관으로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사실 한기총 창립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바로 국가관의 문제였다. 한국 기독교는 반공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했다. 사실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반공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 보수주의는 반공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공산주의를 막는 데 기여했고, 진보주의는 그 울타리 안에서 한국 사회가 반공이라는 미명 아래 독재로 흐르는 것을 막았다. 이런 점에서 다 같이 한국 사회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교회의 복음주의 연합운동은 분명한 국가관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한국교회 연합기관은 보수라는 미명 아래 기독교를 유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보수 세력이 물론 한국 사회에 기여한 바가



박명수 교수
서울신대

크다.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도 한국교회의 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일반 사회에서 한국의 보수주의는 진정으로 보수주의의 가치, 곧 자유와 책임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보수하는 수구세력으로 비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 보수연합단체를 기독교 세력의 옹호자로 바라보고 있다.

지금은 더러운 보수가 아니라 깨끗한 보수가 필요하고, 수구보수가 아니라 개혁적 보수가 필요하다.

여섯째, 한국의 복음주의적인 연합기관은 도덕적 갱신에 앞장서고, 숭선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공직자가 인신에서 탈락되고 선거에서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기준이 요구된다.

지금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가장 근본적인 위기는 도덕성의 위기이다. 한국 사회는 결코 한국교회의 도덕이 자신들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교회 최고 지도자들의 언행이 거기에 걸맞는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종교의 권위는 높은 도덕에서 나온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 연합기관은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곱째, 한국교회 연합기관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겠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를 위해 다른 종교와도 공동으로 노력하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다종교사회이다. 기독교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종교인들과 비교되고 있다.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의 언행은 그대로 다른 종교와 비교되고, 나아가 기독교의 이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말하는 방법은 온건해야 하며, 겸손해야 한다. 지금 한국의 불교는 과거의 불교가 아니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현대화되었다. 실지로 불교는 기독교에 상당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이것은 다른

민족종교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단지 그들의 종교를 우상이라는 한 마디로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는 신앙적 요소 외에서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료로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한국교회 연합기관은 선교단체를 잘 포용해 그들로 하여금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 한국에는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다. 전도, 목회, 사회봉사, 사회개혁, 도덕갱신, 통일문제 등 각종 문제를 다루는 선교단체들이 있다. 이 단체들을 네트워크로 묶어 정부와 사회를 향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선교단체들이 잘 활동할 수 있다면, 개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을 이들을 통해 할 수 있다. 복음주의 운동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파라체치가 많다는 점이다.

한국교회 연합기관은 단지 교파만의 연합이 아니라, 이런 선교단체들의 연합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점이 NCKK와 다른 점이다. NCKK는 단지 교파들의 연합체이지만, 한기총과 한교연은 선교단체들도 회원으로 받고 있다.

아홉째, 한국교회 연합운동은 진보적 입장에 있는 교단내의 복음주의자들과도 교류해야 하며, 그래서 지평을 넓혀야 한다. 실질적으로 한국교회의 대부분은 복음주의자들이다. 감리회와 기장 같은 진보적 교회에도 진실한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있다. 원래 미국 NAE는 개인과 단체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었다. 진보적 교단에 있지만 복음주의적 입장을 가진 목회자나 교회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이 언제나 복음주의 연합단체와 자신들의 교단을 묶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한기총에 감리교만 가입했다면 한기총은 실질적으로 한국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연합기관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 연합기관은 온건한 복음주의적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열째, 한국교회의 연합기관은 대형교회들로 하여금 연합기관에 참여 책임과 의무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은 대형교회이다. 대형교회는 예산이나 활동에 있어 한 교단과 맞먹는 인적·재정적 자원을 갖고 있다. 사실 대형교회는 수많은 소형교회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 그러므로 이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연합기관에 참여해 한국교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도 한국교회의 연합기관들은 대형교회의 지원을 받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을 보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1만명 이상의 신자를 갖고 있는 교회는 회원권과 함께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인적·재정적 자원을 확충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맺는 말: 보수·복음주의 교회의 연합을 촉구하며

과거 1980년대 말부터 한국교회의 보수·복음주의 교회는 한기총을 만들어 한국의 연합사업을 주도해 왔다. 이것은 NCKK 주도의 연합운동을 넘어 한국교회의 대부분을 포용하는 연합운동으로 발전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대우해 줬다. 하지만 지금 보수·복음주의 연합운동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 질문을 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한기총은 이런 문제를 만든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의 언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한기총이 이렇게 되었는가? 한국교회 대표적 연합운동이 어찌 이렇게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는가? 이에 대한 진지한 자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교연도 과연 한기총이 문제가 있다 해서 새로운 단체를 만든 것이 최선이었는지를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교회에 부딪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새롭게 탄생하려는(?) 보수주의 연합운동은, 과연 자신들이 정부나 사회를 향해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필자는 1990-2000년대의 한기총처럼 먼저 보수·복음주의 교회를 하나로 묶고, 다음에 진보적 교단에 있는 복음주의자들과 협력해 감리교 같은 진보 교단이 여기에 조인한다면, 한국교회 연합운동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한국교회가 연합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문제를 삼는 사람은 없다. 국가·타종교·사회를 상대로 한국교회를 대변하고, 한국교회의 수많은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연합단체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겸손하게 자신의 기독교권을 내려놓고, 한국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 유익한가를 생각하는 자세이다.

<끝>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지구를 도는 아이들
마리아나 황 | 예영 | 208쪽

글로벌 시대를 위한 자녀교육 초점은 긍정적 자아개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성 및 관계성 개발에 맞춰야 하며, 이는 곧 신앙을 바탕으로 한 나눔 정신을 배양하는 것이다. 저자는 글로벌 시대에 자녀에게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인 신앙과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목적지향적 교육, 원만한 관계성을 위한 자녀의 감성과 사회성 발달 교육, 지도자적 자질과 성품 형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상처가 별이 되어
김양재 | 두란노 | 256쪽

저자의 '가정 잡언록'. 고난과 상처를 함께 믿음으로 승화시켜 가는 공동체를 시작해, 저자의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 한탄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혼한 사람,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다. 특히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기에 저자의 메시지는 적용과 초점이 가정에 맞춰져 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아파하는 이들을 살렸던, 주옥 같은 처방을 담았다.



젯더미 속에서 살아나오다
피터 글래드윈 | 베다니출판사 | 254쪽

저자는 아기 때 집에 불이 나 끔찍한 화상을 입었으나 극적으로 구출됐다. 청소년 시절엔 폭력과 범죄, 술과 마약으로 얼룩졌고, 보호소와 거리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다. 자살 외의 선택의 길이 없던 절망 속에서도, 인생을 황폐시키는 역경에도 굴하지 않으면서 기적적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오신 것이다.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켰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려주었다.



제5복음서 요한계시록
이병균 | 대장간 | 376쪽

예수님 중심으로 읽는 요한계시록. 저자는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이 실패한 구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 반드시 다시 오실 분임을 알려준다. 이단 사설이 난무하는 이때, 바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요한계시록 강해서이다.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정교하고 헛됨이 없으며,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은 다섯 번째 복음서로서 손색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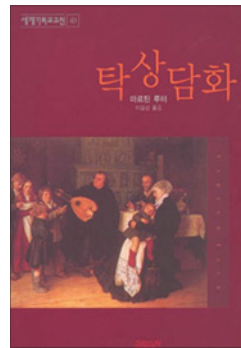
REVIEW

종교개혁 1세대에게 중요했던 진리를 밝히다

마르틴 루터의 어록 모은 <탁상담화>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다. <탁상담화>는 루터가 필립 멜란히톤 등 여러 신학자들 및 추종자들과 더불어 신학과 교리 문제에 관해 나누는 대화를 주제별로 정리한 책이다. 이 루터의 <탁상담화>는 수난을 당한 책이다. 로마가톨릭교회의 분노를 샀기 때문이다. 당시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는 <탁상담화>를 모두 수거하여 소각하도록 명령했다. 1626년 카스파르 반 슈파르가 집터를 파 내려가던 중 구덩이에서 그 책의 인쇄본을 발견할 때까지, <탁상담화>는 모두 사라진 것으로 생각

돼 왔다. 그는 이 책을-독일에서는 위험했기 때문에-영국으로 보냈고, 우여곡절 끝에 1646년에 영어로, 한국내에서는 2005년에 처음으로 완역 출간됐다. 루터는 화려하고 번뜩이는 문장가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주장이 분명한 사람이었고 재기 넘치는 논객이었다. 그의 친구들과 추종자들이 그의 발언을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이 책은 큰 호응을 받아 첫 10년 내 여러 차례 출간되었고, 4백여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독일 개신교



탁상담화
마르틴 루터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522쪽

도들에게 성경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다. 루터는 <탁상담화>에서 예

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학의 주된 교훈과 과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대로 그리스도를 충분히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선의와 우정을 얻어 그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님과 화목하여 (그분을) 인자하신 주님으로 섬길 수 있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이 노력해야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분의 이름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성경을 통하여 흡족할 정도로 많

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는 주님의 모습을 뵈거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 약하고 외롭고 죽음이 두려울 때, 약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그제서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내 속에서 선명하게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강렬하게 맞보았습니다." 책에 담긴 매우 다양한 내용은 종교개혁 1세대에게 중요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리를 깨닫게 한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추나
수술 없이
척추 치료



장수한의원

축 확장 전!

척추 교정

골반 교정

자세 교정

근육 교정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뻣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한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빠진 척추
- 영치 및 다리가 뻣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뼈뺏겨서 허리가 아픈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뚫!

통증 클리닉 : 중풍마비, 관절염, 두통, 신경통, 요통, 디스크, 허리, 목
성 클리닉 : (남성)전립선, 발기부전, 조루, 정력저하, (여성)불감증
한방 내과 : 감기, 천식, 고혈압, 당뇨, 위장병, 갑상성 질환, 변비, 알러지, 피부병, 비염
한방 부인과 : 불임증, 갱년기 장애, 월경불순, 산전 산후 보약
한방 정신과 : 치매 및 예방, 우울증, 불면증, 각종 스트레스 질환
한방 소아과 : 허약체질, 소아경기, 성장장애 및 보약 기타 : 비만치료

이런분께....
 ▶ 이곳 저곳을 다녀 봤지만 효과 못본 분
 ▶ 지긋지긋한 고질병을 없애고 싶은 분
 ▶ 본인은 고통스럽고 불편하나 병원을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한방 특진 안내 >> 침, 뜸, 부항, 추나

두통, 목, 오십견,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 신경통, 중풍,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신경쇠약, 신경통, 고혈압, 부인병, 갱년기 장애, 어린이 보약, 산전산후 보약

각종 보험 환영 직장상해보험 교통사고 및 스포츠사고 전문 HMO (이지초이스) 통증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

장소를 이전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144 s western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213)381-7575 / Cell:(213)219-2739

월-금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2시 (예약 하신분은 한해서 밤 10시까지 진료)

미국을 선도하는 '변혁적 교회'의 7가지 요소

톰 레이너·에드 스테저 박사의 '교회혁명'

복음주의권 신학적 논쟁 다양한 입장 소개

성경 무오성과 섭리 논쟁 등 17개 주제 다뤄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회의 전문조사기관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Lifeway Christian Resources) 회장 겸 CEO이자 빌리 그래함 선교대학원 학장인 톰 레이너 박사(Thom S. Rainer)가, 라이프웨이의 기독교 리소스와 선교담당 책임자인 에드 스테저 박사(Ed Stetzer)와 함께 <교회혁명: 변혁적 교회>를 펴냈다.

두 저자는 7천여 명의 목회자와 4천여 곳의 교회를 인터뷰했고, 그 중 건강하다고 판단된 250개 교회에 대해서는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또 1만5천여 명의 성도들과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현대 교회의 문제점과 처방을 제시한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사람들과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이 변화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더 잘 이해하고자 연구에 매진했다고 한다.

톰 레이너 박사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지역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역기능적 교회가 지닌 6가지 특징',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예배 스타일', '적극적이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7가지 이유',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6가지 근본 처방' 등 다양한 칼럼들을 미국 신문 크리스천포스트에 게재했고, 이는 본지에도 번역·소개된 바 있다.

저자들은 "변화와 '교회', 이 두 단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강력한 단어"라며 "철저하고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로,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과 교회와 공동체 등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라는 개념을 간과해서는 안



교회혁명
톰 레이너, 에드 스테저
요단출판사 | 352쪽

된다"는 말로 책을 시작한다. "변혁적 교회가 보여주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애물이나 고난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크시다는 것이다."

그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변화는 '평가 기준'에 대한 것이다. '교회와 사역의 성공'은 과거 3B, 즉 교회 성도(Bodies), 예산(Budget), 교회 건물(Building)이라는 외면적 영역으로 평가받아왔다. 그래서 교회는 숫자를 세는 것에 기준이 많았지만, 저자들은 '변혁적 교회'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이를 대신할 건강한 평가기준을 제시한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교회들을 추리고 이곳들에서 사역하는 리더 250여명과 인터뷰한 결과, 7가지 공통된 요소를 발견했다.

변화의 고리는 선교적 사고, 변혁적 리더십, 능동적 관계 형성, 기도를 통한 믿음, 예배, 지역공동체, 선교와 전도 등 7가지 요소를 가진 3개의 카테고리(파악하기, 끌어안기, 참여하기)로 구성된다. '파악하기'는 성도들을 구경꾼의 위치에서 벗어나 직접 행동하도록 만들고,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끌어안

기'는 올바른 가치를 부여잡는 것이다. '참여하기'는 전통이 되어버린 프로그램이나 습관화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고 자신의 교회 환경에 가장 적합한 사역을 하면서 교회와 지역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후 책에서는 이 7가지 요소들에 대해 하나씩 설명하고 있다. 성공적인 변혁적 교회가 되려면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잘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너무 많은 교회들이 과거의 성공에 묶여 과거를 넘어서지 못한다며, 이 같은 모습에서 탈피할 것을 촉구한다. 과거의 승리는 더 이상 승리가 아니며,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 단지 패배의 기분을 달래주는 교묘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직면한 많은 어려움을 목격했고, 또 그것에 대해 알렸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려 한다. 희망은 바로 변혁적 교회이다. 그리고 '더 많은 변혁적 교회를 세우고, 성도와 함께 변화의 길을 걷고, 세상을 바꾸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연구를 통해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대웅 기자



톰 S. 레이너 박사

성경 속 역사와 예수님 족보·행적을 한눈에

도표 중심 'Only bible school' 시리즈 7권 중 3권 출간

온리바이블스쿨 출판사에서 'Only bible school' 시리즈를 출간했다. 총 7권으로 이뤄진 시리즈 중 이번엔 '한국사와 성경기독교사 비교표', '예수 그리스도 족보와 올바른 성경 통독법', '예수 그리스도 행적 완전체첩' 3권이 먼저 출판됐다. 제작사 측은 "성경통독을 하면서 읽고 있는 시대가 우리나라로 치면 연

제쯤 될까, 성경에 나온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순 없을까, 지금 성지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 족보와 올바른 성경 통독법'은 예수님의 가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의 관계를 그려냈다. 예수님의 혈통을 파악하

는 것은 그가 실존하셨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성경을 읽다 예수님 족보가 나오면 어렵고 지루하고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아 개념을 잡기 힘들었던 성도들을 위해 만들었다. 출판사 측은 "성경을 보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을 이해하고 그분의 구속사적 은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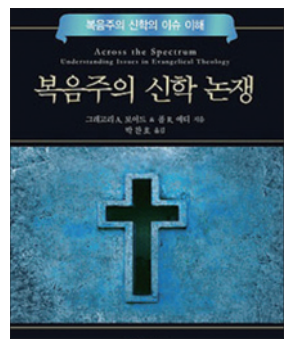
<복음주의 신학 논쟁>은 복음주의 내에서 논란이 되어 온 여러 신학적 주제들에 대해, 복음주의자들이 취하고 있는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복음주의자'는, 에큐메니칼 신조들에 표현돼 있는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핵심적 신앙과 실천의 모든 내용에 있어 성경의 우선적 중요성에 헌신돼 있는 사람들이다.

책에서 소개하는 '신학 논쟁'은 총 17가지. '성경의 무오성'과 섭리·예지 논쟁을 비롯해 기독교, 구원론, 속죄론 등 조직신학적 주제와 세계와 성찬, 미전도종족, 여성사역, 영적 은사, 천년왕국 등을 망라하고 있다. 화체설 같은 가톨릭적 입장이나 '하나님을 가이아(Gaia)로 보는' 자유주의적 입장들은 제외하고, 복음주의권에서 폭넓고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논쟁들을 다루고 있다.

이 외에 부록에서 '신학 방법론 논쟁'과 '성령 세례', '그리스도인과 정치에 대한 세 가지 견해', '죽은 아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등 13가지를 추가 논의함으로써, 총 30가지 논쟁들을 소개한다.

예를 들어 '무오성 논쟁'에서는 성경에는 어떤 종류의 오류도 없다는 '무오설'과, 성경이 역사나 과학 같은 분야의 사소한 문제들에 있어서도 무오하다고 간주될 수는 없고 기독교 신앙과 삶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있어 실수하지 않는다는 '무류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각각의 성경적 논증과 지지하는 논증들, 반론에 대한 응답들을 제시한다. '예지 논쟁'에서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와 열린 유신론을, '속죄 논쟁'에서는 대리형벌 이론과 승리자 그리스도 이론, 도덕적 통치 이론을 각각 비교한다.

저자는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명백하게 순수 학문을 공부하는 방식을 취했고, 교사가 자신의 관점으로 학생들을 설득하는 데 있지 않다고 밝혔다. "도리어 가르침의 목적은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도록 도움으로써 학생들의 지성을 넓혀 주고 그들로 하여금 스



복음주의 신학논쟁
폴 R. 에디, 그레고리 A. 보이더
CLC I 616쪽

스로 비판적으로 사고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침의 목적은 특정한 교리의 주입이 아니다." 책은 전문적인 논의나 한쪽 편에 힘을 실지 않고, 복음주의의 내의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는 '입문서' 역할에 충실한다.

한국적 상황에서 특히 배워야 할 점은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는 점이다. "학생들에게 왜 진지하고 경건하며 성경적으로 정향된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지 평가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심지어 자신들과 대립되는 자신들의 교사의 입장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격려받고 그런 힘을 길러야 한다."

현재의 신학적 풍토는 논의의 폭이 지나치게 좁은 경우도 있고, 겉핥기만 하면 상태를 이단으로 몰거나 정죄해 버림으로써 건전한 논쟁 자체가 불가능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과 맞지 않는 성향의 상대의 '신상'을 털어 조롱하고 비난하거나, '자기편'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진영에는 무자비한 모습들도 만연해 있다. 중세의 '마녀사냥'과 유사한 이태도는 다양한 사상을 학습할 필요가 있는 젊은이나 신학생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책을 통해 건전한 입장을 살피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출판사의 '복음주의 역사 시리즈' 일부이다. 원제 'Across the Spectrum(스펙트럼을 넘어서)'. 이대웅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밀착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 T. 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으로 수축되지 않고 인체에 완벽한 섬유와 세계 특허 이중지퍼 사용. 한국 식약처에 의뢰기기로 등록된 교정 코르셋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증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CORSET Tel: 323.316.6815

'기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발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액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재미과학자 승문기 박사는 UCLA의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인정되어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약한 인슐린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상의 6개월복용시 혈당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에 인슐린 분비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평생을 앓고 있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건강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1병 \$76
3병 \$200
6병 \$372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 가능 개선제 PRO-Z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계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 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th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과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중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TOGO & 캐더링 원형

머글레 싸갈레

오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월: 북미권 돈가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화: 타블고기 콩치구이 오모라이스 떡만두국 우거지잡채

수: 동태찌개 함박스테이크 코다리찜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김밥(탕) 제육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일백반

금: 궁치김치 떡볶고기 민어구이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갈치구이 돈가스 치킨데리야끼 감밥+우동

연말연시 동행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기독교모임 캐더링·도식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인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침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10% 할인

트렌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신고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니다.

- 대상: 전도와 신고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개월 \$60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튜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담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Genesis 2015 ALL IN STOCK @ \$36,120

Genesis 3.8 2014 ALL IN STOCK @ \$36,120

Equus signature 2014 ALL IN STOCK @ \$61,9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동성애 반대 1천만 서명운동 전개하겠다”

한기총,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성명서 발표



과거 한국교계의 동성애 반대 집회 모습.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5일 '동성애 및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법안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반대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이와 함께 '동성애 반대 1,000만인 전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모든 종단을 뛰어넘어 '건전하고 올바른 성정체성 및 성의식'을 통해 전통적인 사회 질서와 통념을 수호하려는 사람들의 마음과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동성애 반대 1,000만인 전 국민 서명운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강평 목사, 총괄본부장에는 이태근 목사, 실무본부장에는 김봉준 목사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한기총은 “최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들과,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진행하고 있는 '동성애 및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법안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동성애는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의 질서 및 생물학적이며 사회적인 통념에 어긋난다 △동성애는 단순한 '경향'의 문제가 아니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분명하게 '죄'이다 △동성애를 통한 '동성결혼'은 생물학적 질서를 파괴하며 인간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이다 등을 들었다.

한기총은 “동성애 반대는 인권침해이자 성소수자의 차별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고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화 추진'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최근 서울시가 동성애를 용인

하는 내용으로 큰 논란이 대두되었던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채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해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이뤄지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적극 반대할 것”이라며 “한기총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 및 법제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단순히 정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온전히 긍휼과 관용으로 대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성경적이며 전통적인 관계 회복과, 상식적이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본래 자리로 돌아와 변화를 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전했다.

이대웅 기자

예장대신-백석 통합 선언 합의서

전 총회장 “통합은 하나님의 뜻”



대신 총무 홍호수 목사, 총회장 전광훈 목사, 서기 이진해 목사가 합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논란 됐던 4개항은 합의에서 제외

예장 대신과 백석이 9일 '통합 선언 합의서'를 작성·공증했다. 대신측 전광훈 총회장은 이날 오후 안양 새중앙교회(담임 박중식 목사)에서 열린 '통합선언총회 설명회 수도권 모임'에서 이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전 총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대로 '지난 12월 2일 합의서' 내용 8개항 중 논란이 된 4개항을 제외하고 공증을 받아들였다. “12월 16일 천안 백석대에서 열리는 행사가 '통합선언총회'가 아닌 '통합총회'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합의서 제목에 '통합'이 아닌 '통합 선언'이라고 명시했음도 강조했다.

공증된 4개항의 골자는 ▲교단명은 '대신백석'으로 하되 대신측에서 합류한 교회가 90% 이상일 경우 '대신', 60% 이하일 경우 '백석'이라고 한다(대신측 잔류 인원이 '대신' 명칭을 사용할 경우 제반 문제는 대신측 임원과 전권위가 해결한다) ▲백석대 신대원의 명칭은 대신측에서 80% 이상 합류할 경우 '백석대학교 대신신학대학원'으로 한다 ▲총대수는 대신측에서 90% 이상 합류할 경우 양측 동수로 하되, 통합 이후 합류하는 교단의 총대수는 양측이 협의해 결정한다 ▲교단 역사는 '백석'으로 하되, 통합 이후 교단역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한다(위원은 양측 동수로 하며 위원장은 대신측 증경총회장인 최복규 목사가 맡는다) 등이다.

다만 전광훈 총회장은 “양측 유지재단·세계선교회·언론은 통합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 유중국 부총회장은 “우리 교단은 90%가 동참하지 않으면 통합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90% 이하일 경우에 대한 조건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통합 선언 배경에 대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열된 한국교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

시 한 번 부흥의 시대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했다. 합의서에는 양측 총회장과 서기가 서명·날인했다.

전광훈 총회장은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며 “이스라엘이 이방에 포로로 잡혀간 뒤에도 끊임없이 서로 다뤘듯이 한국교회도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신과 백석의 통합이 성사되면 한국교회를 새로 쓸 뿐 아니라 남북통일까지도 이뤄질 줄 믿는다”고 역설했다.

유중국 부총회장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백석 내에서도 '교단을 대신에 바치려 하느냐'며 반발이 컸지만, 장중현 총회장님이 대승적 결단으로 많은 양보를 해주셨다”며 “향후 안양대와 백석대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회장은 “교단과 한국교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일이고, 통합 논의 절차도 전권위를 한 번도 배제한 적 없이 합법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우릴 믿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전광훈 총회장은 “일각에서 '통합 찬반투표를 기화로 교단을 분열시킨 뒤 모 신학교를 인준신학교로 해서 교단을 운영하고, 분열 책임은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한 총회장에 돌리자'고 한다는 정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제가 교단이 분열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총회 당시 투표를 하지 않고 4가지 조건을 걸어 만장일치 결의를 이끌어냈고, 9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시종일관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총회는 11일 오전 11시 대구 대신교회(담임 황수원 목사)에서, 같은 날 오후 4시 대전 영광교회(담임 양일호 목사)에서 각각 2·3차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대웅 기자

NCCK '2014 한국교회 인권선언문' 발표

인권 지키는 일에 사회 구성원 모두 나서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인권센터(소장 정진우 목사)가 '2014 한국교회 인권선언문'을 발표했다.

NCCK 인권센터는 이 선언문에서 인권을 지키는 일이 우리 모두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에 의한 폭력을 멈추어야 하며 국가폭력에 대한 억울한 희생자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보장되어야 하며, 억울한 재판에 의해 구속된 사람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군대 내 인권을 향상하고 민주적인 군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사상과 표현,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를 강화하여야 하

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 △북한인권은 한반도 분단체제의 산물임을 깊이 인식하고 대결과 압박이 아닌 화해협력을 통한 실질적 인권증진의 길을 찾아야 한다 △노동 인권, 특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과 부당하게 해고된 이들의 빼앗긴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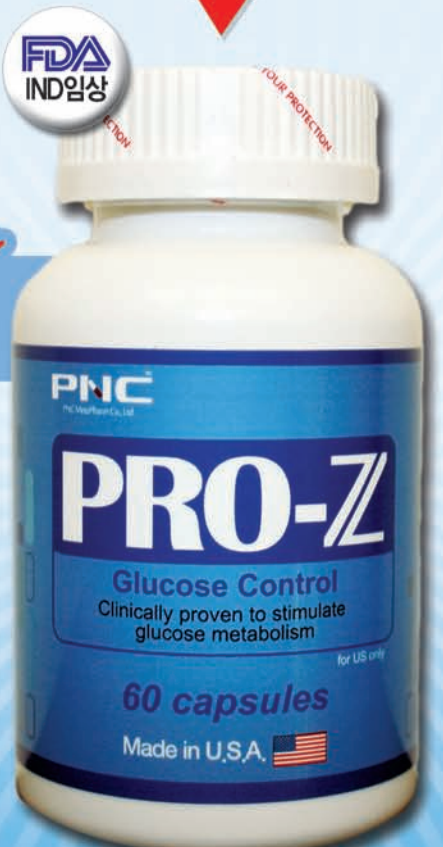
이대웅 기자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프로지(PRO-Z)를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체중에서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를 가능케 해 당뇨병에서 해방됩니다. 프로지(PRO-Z)는 근육세포 내에 당 대사를 거부하는 근본원인을 개선하여 혈당을 스스로 조절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 이상 환자에서 혈당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병원 2곳에서는 당뇨치료 보조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 ✓ 한국 30만명 판매
- ✓ 미국 출시 기념 SALE

Special Price
1병 \$76 3병 \$200 6병 \$372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2차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체중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체중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솔루션입니다.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

타주 대리점 및
프로자셀러모집중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미국에서 에쿠스를 가장 많이 파는 딜러!
소비자 만족도 서부지역 1위!
미국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Hyundai Holidays

최신형 2015 "DEMO"
EQUUS SIGNATURE

\$485

+TAX
36 MON.



MODEL #E0422R85

MSRP: \$62,450, \$4,990 DUE AT LEASE SIGNING, RESIDUAL VALUE \$32,474, LEASE CASH \$2,000, VALUED OWNER COUPON \$1,000, MILITARY \$500 COLLEGE GRADE \$400.

최신형 2015
GENESIS SEDAN 3.8L

\$355

+TAX
36 MON.



MODEL #B1402R65

MSRP: \$39,135, \$1,990 DUE AT LEASE SIGNING, RESIDUAL VALUE \$21,915,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1500, MILITARY \$500, COLLEGE GRADE \$400.

HYUNDAI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513.4006



저스틴 길
626.513.4580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www.phhyundai.com

